

‘취업 찾아 삼만리’ 채용박람회 대성황



6일 채용박람회가 열린 LA컨벤션센터에서 금호타이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타주서도 대거 몰렸다

중앙일보 **J** 중앙방송 주최
▶ 관계기사 3면

LA에서 처음 열린 대규모 한인 채용박람회장은 구직 희망자들과 구인 기업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중앙일보·중앙방송과 잡월드 USA(Job World USA)가 6일 LA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아시아 채용박람회’에는 2500여명의 한인 지원자들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채용박람회에는 SK, 두산중공업, STX, 금호타이어 등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뱅크카드서비스 등 LA지역 한인기업, 뉴욕라이프, 액사 등 주류기업

2500여명 한인 인재 열거
40여 기업 부스 북적북적

등 40여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이력서 접수와 함께 인터뷰도 실시했다.

지원자들은 LA를 비롯한 남가주는 물론 뉴욕, 시카고, 유타 등 전국 각지역에서 참석했다.

기업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이번 채용박람회에 높은 관심을 보인 STX그룹의 이재용 인사팀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렸다”고 평가하며 “주류 채용박람회는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이번에는 한인들이 많

이 참여해 성과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뉴욕라이프의 허희범 매니저도 “수천명이 참가하는 주류 채용박람회에 가도 쓸만한 한인 인재를 찾기 쉽지 않다. 이번 박람회에서 다시 인터뷰를 할만한 10여장의 이력서를 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대부분 영어로 면접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지원자들이 자기 소개와 기

업 관계자의 질문에 대해 영어로 답하는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특히 SK는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영어구사를 요구해 지원자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올해 UC샌디에이고를 졸업한 한 규씨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려 도움이 많이 됐다”며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 기업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한 잡월드USA는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인 최대 리크루팅 회사다. 김기종·서기원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